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엠마오, 나눔의 체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떠나고 있습니다. 스승님으로 모시던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실망감과 허탈한 마음을 주었고, 침통한 표정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뒤로 하고 떠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걸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다시 성경 말씀으로 당신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루카 24,29)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합니다. 그 초대로 예수님은 그들과 식탁에 앉으셨고 빵을 들어 찬미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길에서 들은 예수님의 성경 말씀으로 자기들의 마음이 타올랐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체험으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의 제자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고, 서로의 체험을 나누며 믿음을 키워갑니다.

이렇게 ‘엠마오’라는 마을의 이름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장소를 상징하

게 됩니다. 그런데 엠마오 이야기의 흐름은 마치 우리가 드리는 미사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다가오시어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식탁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또한 미사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과 이해에 도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체험은 예수님의 나눔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누신 것처럼 누군가는 먼저 나눔을 실천해야 사랑의 체험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사회의 모임 안에서 우리는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체험을 불러오는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나눌 때, 다른 이들은 자기 마음에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나누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씩 나누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누군가에게 받는 기쁨을 체험하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풍요로움이 생겨납니다. 나눔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기도 하고, 기쁜 마음과 환한 미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신앙 체험이 되기도 하고, 함께 하려는 공감과 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성체를 모셔도 무미건조한 마음만이 있다면 우리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나눔과 사랑을 깨닫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체험으로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면 우리는 엠마오에 서 있게 됩니다. 엠마오의 길을 걷듯 세상에서 나눔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이 풍성해 질수록, 나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공동체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뚜렷이 현존합니다.

춘양 본당 김요한 요한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며 마음의 눈이 가리어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빵을 나눌 때 그리스도를 알아 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이 전례를 봉헌합니다.

입당성가 :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본기도

†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사도행전 2장 14절. 22절-33절

안 내 :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여러분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이라고 소리 높여 말합니다.

묵 상 :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하느님의 사랑을 뺏속 깊이 느꼈듯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기쁨을 누리야 하겠습니다.

화 답 송 :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제2독서 : 베드로 1서 1장 17절-21절

안 내 :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묵 상 : 세례 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이러한 변화를 계속 이루어 가도록 촉구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24장 13절-35절

강 론 : ‘엠마오, 나눔의 체험’(1-2쪽)

예물준비성가 :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실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도, 의욕도

모두 상실해 버렸습니다.

<침묵>

믿음을 위협받고 이전의 삶,

곧 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믿음을 찾고

기쁨과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침묵>

이러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2번 ‘감사의 송가를’

※ 공소사목 성금

풍산공소

4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02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알 림

■ 교구 청년 단합대회

- 일시 : 4월 30일(주일) 10:00 - 17:00
- 장소 : 교구청
- 대상 : 안동교구 내 본당 청년, 대학생
- 참가비 : 1인 10,000원

■ 2017년 교구 친교의 날 및

제26회 교구장배 체육대회

- 일시 : 5월 3일(수) 09:00 - 15:00
- 장소 : 영주 국민체육센터
- 종목 : 테니스, 족구, 피구, 윗놀이, 지구별 줄다리기
- 참가자격 : 안동교구 내 가톨릭 신자 (단, 예비신자는 참가 불가)
- 주최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북부지구 지구사목협의회
- ※자세한 사항은 공문 참조.

■ 예비신학생 성소주일 행사

- 일시 : 5월 6일(토) - 7일(주일)
- 장소 : 무학연수원 및 대구 대신학교
- 대상 : 2017년 예비신학생으로 등록된 학생
- 회비 : 1인 20,000원

■ 성체분배권 수여 교육

- 일시 : 5월 10일(수) 10:00 - 13: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대상 : 교구 내 성체분배 소임을 수행할 수도자 및 평신도
- 준비물 : 미사도구, 필기도구
- 신청 : 5월 2일(화)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3

- 일시 : 5월 8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주제 : 루카 복음 3
- 준비물 : 신,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대신학생 부모모임

- 일시 : 5월 20일(토) - 21일(주일)
- 장소 : 베들레헴 공동체

■ 제2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5월 20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5월 18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5월 21일(주일) 13:00 - 18:00
- 장소 : 휴천동 본당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5월 18일(목)까지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4월 30일(부활 제3주일) : 서문동 본당 (견진성사)
- 5월 14일(부활 제5주일) : 울진 본당 (견진성사)

■ 우리농 목성동 장날

‘입새달에 만난 맛난 봄나물장’

- 일시 : 4월 30일(주일) 10:30 - 15:30
- 장소 : 우리농 목성동 직매장 앞
- 문의 : 054-856-0127(우리농 목성동 직매장)
- ※ “우리농 장날에 요리교실” 함께 진행
참가비 5,000원(재료비 포함) / 선착순 30명

■ 2017 수취페 도미네 생활성가 음악피정

- 5월 14일(주일) 19:00 공검성당

“취약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동 이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는 4월 30일은 제103차 세계 이민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이들이 고국을 떠나 이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6년에 국내 체류 이주민 200만 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2017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를 통해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는 탈출기 22장 20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시며 이주 현상은 구원 역사의 일부임을 언급하십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담화문에서 ‘시대의 징표’라는 문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주 현상은 **시대의 징표**, 곧 보편적 친교의 관점에서 역사와 인간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적 활동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는 징표입니다.” 또한, 교황님은 “교회는 이 문제의 복잡성을 모르는 바 아니며, 흔히 이주와 관련된 고통과 비극 그리고 이주민들을 정중하게 환대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시며 이주 현상이 가져오는 개인과 사회, 정치와 경제 다방면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길 희망하십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황님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인간은 짐짝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도는 인간, 특히 아동 이민과 같이 취약한 상태에 처한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그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중에서도 교황님은 홀로 남겨진 아동 이민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동이민의 현실은 어린이며 이방인이고 자기방어 수단이 없기에 삼중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뉴스를 통해 곳곳에서 발생한 분쟁의 피해자로 주로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서는 아동 이민자들의 기본 권리를 확인하셨습니다. 그것은 건전하고 안전한 가정환경에 대한 권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오락 활동을 할 권리 등입니다. 또한 아동 이민을 위한 **보호, 통합, 장기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시며 시급한 구호와 지속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을 여러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않는 교회와 사

회단체, 기관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아동 이민 보호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저 역시 이주의 현장에서 복음 정신으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함께하시는 사제와 수도자, 실무자와 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교황님의 사목적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동 이민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이주노동자가정의 자녀들, 난민가정의 자녀들과 외국에서 태어나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그들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들을 이주배경아동,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와 함께, 이미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적을 가진 이주 아동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이주배경 자녀들이 이주 체험에서 오는 크고 작은 고민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래 혹은 어른들로부터 당하는 차가운 시선이나 따돌림,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취약으로 인한 방임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적 경험들은 쌓이고 쌓여 결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희망보다는 절망감을 안고 살아가게 합니다.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주배경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나라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이들에 대한 “보호, 통합, 장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각 개인은 국적, 피부색,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사회와 정부는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차례에 걸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불발을 애 통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가입하였습니다. 아동이 정부에 등록되고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는 것은 국민 이전에 인간의 권리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인종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야 참된 선진국이라 할 것입니다. 이주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최근에야 이주사목에 종사하는 사제들과 함께 ‘이주민을 위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의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계를 바로 인식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온갖 꽃과 나무, 새와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느님을 떠올립니다. 하느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서로서로 하느님 창조의 눈길로 돌보고 사랑하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2017년 4월 30일
제103차 세계 이민의 날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옥현진 시몬 주교



나가사키

김동남 로사
(안동가톨릭문인회)

언젠가 교우 한 분이 나에게 나가사키 성지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느냐고 물어왔다. 몇 년에 걸쳐 일본 전역을 여러 번 나누어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으나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건물이나 유적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순간 나는 '일본에 성지가?' 하며 의구심을 품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오래된 나무, 바위 등도 신으로 여기는 자연숭배의 사상이 강한 곳이고 유일신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곳이라는 알팍한 지식이 나의 전부였기 때문에 일본 성지순례라는 단어는 상당히 낯설게 들렸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즈음에 우연히 나는 국내에 개봉조차 않은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미리 감상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의 천주교 박해를 다룬 영화라는 짧은 소개 문구에 강렬한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일본 성지에 대한 나의 무식함을 조금이라도 상쇄하고자 3시간에 가까운 그 영화에 몰두하였다. 사일런스, 즉 신의 침묵에 대한 인간의 항변과 믿음, 신념, 고통에 대한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제는 무거웠으나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이다. 때는 17세기이다. 일본으로 선교활동을 떠난 페레이라 신부의 실종소식에 그의 제자인 로드리게즈와 가루페 신부는 스승도 찾고 복음전파를 위해 일본으로 떠난다. 그들이 나가사키라는 작은 포구에 도착하자 어부인 기치치로는 두 사람을 신자들에게 안내하나 그곳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처참하였고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가톨릭선교에 대한 일본권력자들의 박해는 집요하고 잔인하였다. 그들은 두 신부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신부의 목숨을 물론이고 마을사람들까지 살려주겠다.' 신의 얼굴이 새겨진 조각상을 밟고 지나가면 배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제의 한 것이다. 짙에 묶여 바다에 던져진 신자들을 구하기 위해 가루페 신부는 바다에 뛰어든다. 신자들을 결코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배교할 바에는 차라리 신자들과 같이 죽음을 택한 것이다. 또 한 사람의 신부 로드리게즈는 거꾸로 줄에 매달려 목이 잘려지는 사람들의 고통에 찬 비명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절규하였다. '당신은 침묵하고 있지만 나는 저들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는 신의 얼굴을 밟았고 사람들은 목숨을 건진다. 바로 그때 그는 스승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게 된다. 그는 배교하여 사람들을 살렸으나 일본여자와 결혼을 하고 일본불교를 연구하며 일본에 귀의하여 살고 있는 것을 목격한 로드리게즈의 고통은 절정에 달한다. 처음 이들을 신자들에게 안내한 어부 기치치로는 배교할 것을 강요하는 잔인한 고문을 두려워하여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며 살아남는다. 그는 그럴 때마다 로드리게즈를 찾아와 고해성사를 청하며 평화를 간구하였다. 그가 등장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교차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가슴이 먹먹하여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다. 일체의 모든 성물을 빼앗긴 로드리게즈 신부는 정신적 육체적 병고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일본식으로 바꾸니에 담겨 화장되는 로드리게즈의 손안을 영화는 오래오래 클로즈업하였다.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불타오르는 그의 손에 무언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작은 십자가상이었다. 비록 신의 얼굴을 밟고 지나간 그였으나 그는 신을 배반한 게 아니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로드리게즈에게는 신의 침묵조차 바로 신의 존재이유이다. 3시간 내내 영화를 관통한 슬픔과 공포와 고통의 댕가로 로드리게즈 신부의 믿음과 신념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이므로 그분들의 흔적을 찾아 조만간에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떠나리라.